〔보 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34, No. 3 (2010) p.492~507

패션에 나타난 에코디자인의 색채경향 연구

송지은 · 최경희*†

대구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의류패션산업전공

Eco-design Color Trends in Fashion

Jee Eun Song · Kyung Hee Choi*†

Dept. of Fashion Design, Daegu University
*Division of Apparel & Fashion Business, Hansung University

접수일(2010년 1월 7일), 수정일(2010년 2월 2일), 게재확정일(2010년 2월 17일)

Abstract

The eco-design in modern fashion is mixed with a well-being trend that combines functionality and ethics with technology to suggest a new fashion style for the 21st century. This study analyzes the colors of the eco-design in the current fashion trends and identifies the eco-friendly color images that suggest directions for eco-desig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co-design is an ethical design concept of the ecological value. It can be classified into the functional efficiency in the multi-functionality the sustainability, the recycling capability, the trends for health and craftsmanship, according to various suggestions by eco-design related theorists. Second, the eco-colors shown in the fashion trend follow the order of YR, R, Y, N, and B, with the order of the pale, grayish, light grayish and dull tones. Third, the hue trends of eco-colors each eco-type are focused on R, YR, and Y. With regards to the tones, the functional efficiency, the multi-functional capability, and the sustainability are shown in the neutral tone, while the recycling capability is shown in the grayish tone and the trends pursuing health and craftsmanship are shown in the pale tone.

Key words: Eco-design, Well-being, Sustainability, Color image, Color trend; 에코디자인, 웰빙, 지속가능성, 색채이미지, 색채트렌드

I. 서 론

1. 연구의의 및 목적

현대사회는 생태위기라는 위기요소로부터 벗어나 인간성 회복을 위한 생태학적 윤리성에 근거를 둔 환경친화적 측면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현재 생태계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된 에코디자인(Eco-design)은 건강한 삶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친화적인 실천적 시도 및 활동으로 예술과 문화의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다. 패션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에콜로지' 개념을 중심으로 자연색채, 천연섬유의 사용과 함께 자원절약 및 재사용과 재활용, 생분해성 폐기에 이르는 친환경적인 시도가 디자인의 필수조건이 되었다. 최근의 에코패션은 새로운 미학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태도의 재해석으로 웰빙테마와 부합하여 첨단과학과 믹스된 기능성과 건강성을 추구함으로써 형태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21세기 패션의 새로운 스타일로 제시되고 있다.

패션에 나타난 에코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에콜로지 경향을 자연적 측면과 인간적 측면으로 분류

†Corresponding author
E-mail: samchi28@hanmail.net

한 연구(전소영, 1995), 패션의 환경 친화적 디자인 특성을 소재선정, 제품수명연장, 재활용디자인으로 분류한 연구(김문숙, 1998) 등 주로 조형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에코디자인의 색채에 관해서는 에콜로지 룩의 특성을 색채를 통해 규명한 연구(허혜진, 김영인, 2007)가 일부 진행되었다. 그러나 심리가 반영된 감성컬러디자인의 폭은 더욱 넓어지고 다양해지는 추세(권현정, 2002)로, 색채감성에 관한 연구는 일본의 NCD이미지 스케일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한국인에 맞는 각 이미지별 색채조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색채는 패션을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서 색채이미지의 상징성과 기호를 활용하여 적합한 패션이미지 구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패션에서 빈번하게 논의되어 온 에코경향을 살펴본 후, 2000년대 패션트렌드에 나타난 에코패션디자인의 색채분석을 통하여 에코색채경향과 그에 따른 친환경적인 색채이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21세기 에코패션디자인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패션분야는 물론, 디자인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이론적 연구로 에코디자인의 형성배경 및 개념, 에코디자인의 유형별 특성, 패션에 나타난 에코디자인의 역사적 변천을 고찰한 다음, 실증적 연구로서 2000년대 패션에 나타난 에코디자인의 색채경향과 색채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 및 범위는 웰빙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에코경향이 패션트렌드로 부각되기 시작한 2003년 S/S부터 2009년 F/W까지의 패션트렌드로, 이로부터 에코경향을 반영한 색채를 파악하여 그 변화의 흐름과 색채이미지를 연도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삼성디자인넷의 프리트렌드(Pre-Trend)에 제시된 시즌별 주요 테마들 중, 에코디자인의 개념 및 유형별 키워드를 중심으로 에코테마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색채의 추출방법은 에코테마에 제시된 266개의 팬톤(Pantone)색채를 컬러라이브러리(Color Library)시스템을 통해서 먼셀색체계 10색상과 PCCS 색조 값으로 변환하여 에코색채의 연도별 변화추이와 에코경향을 표현하는 주요 색채이미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측색방법으로는 웹사이트 상의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각 컴퓨터의 환경에 따라 다소 색 값의 차가 보일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보다 정확한 색을 비교하기 위해 (주)IRI색채디자인연구소에서 제공한 모니터 보정 프로그램인 Brightness/Contrast 통합 조절용 패턴으로 최적화 시킨 후, 색채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패션트렌드에 나타난 에코색채분석은 먼셀표색계의 10색상 R(red), YR(yellow red), Y(yellow), GY(green yellow), G(green), BG(blue green), B(blue), PB(purple blue), P(purple), RP(red purple)과 N(neutral)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색조는 PCCS의 12색조인 vivid, strong, light, dull, light grayish, grayish, dark grayish, bright, pale, deep, dark, soft와 N계열인 White, light Gray, medium Gray, dark Gray, black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코색채이미지의 분석방법은 삼성디자인넷의 인플루언스(Influence)에 나타난 에코트렌드 테마로부터 에코 관련 형용사를 추출한 다음, 본 연구를 위해 (주)IRI색채디자인 연구소에서 개발한 색채이미지 스케일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패션이미지 용어를 혼합, 절충한 색채이미지 분석 스케일을 개발하여 포지셔닝함으로써 연도별, 유형별로 에코색채이미지를 파악하였다. 이처럼 색채이미지 분석 스케일을 개발한 것은 IRI색채이미지 스케일을 분석도구로 사용함에 있어, 현재 환경, 제품, 웹사이트 등의 마켓색채의 객관적인 리서치 및 디자인 제안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포괄적인 색채이미지 스케일로서, 좀 더 패션이미지에 적합한 분석도구로 활용하여 논문의 객관적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한편, IRI색채이미지 스케일을 활용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건축색채계획 연구(이경미, 박영순, 2006)와 색채선호도 연구(민지현, 2009), 색채이미지에 관한 연구(김경희, 2007; 유명희, 2009) 등의 분석도구로 활용됨에 따라 본 논문의 실증적 연구방법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에코디자인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에코디자인의 형성배경 및 개념

지난 20세기 동안 급진적인 과학발달의 혁신과 산업구조로 인한 환경문제는 1960년대에 생태계 파괴라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여, 환경보

존과 인간성 회복을 위한 생태학적인 측면으로 발현되어 왔다. 에코디자인은 생태계를 연구하는 학문인 에콜로지(Ecology)로부터 여러 분야의 접근을 포함하는데(오덤, 1993/1995),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그린디자인의 이념으로 환경마크제도의 도입과 환경지향 마케팅 등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여기에서 그린디자인은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자원절약과 생산과 유통-사용-폐기의 3단계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들어진 디자인(Hopfenbeck, 1993)을 의미한다. 1990년대에 환경을 위한 각종 국제기구와 규제조치가 강구됨에 따라 '지속가능한'이란 용어와 함께 '환경친화'와 '에코'의 개념이 발전하면서(전종찬, 2004), 현재 미국에서는 생태학적이라는 뜻으로 '친환경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한소원, 1995), 에코디자인은 사회생태학적 균형이라는 개념아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전체의 공동선 지향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추구되는 것(권영걸, 2001)을 의미한다. 이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표적인 문화트렌드인 '웰빙'과 접목되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중요시하는 인간친화(한소원, 김영인, 1999)의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에코디자인은 진보적인 환경운동으로부터 시작된 현시대의 가치관과 사회, 문화적 변화에 따른 흐름을 반영하며, 에콜로지, 그린디자인, 지속가능한, 웰빙 등 그 맥락을 같이 하면서 변화, 발전하는 다양한 흐름으로 이해된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계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한 환경론적인 실천방안을 디자이너들의 책임영역으로 강조하며, 건축, 제품, 공예디자인 계열을 시작으로 전체적인 환경부하의 절감과 보전을 고려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도입하였다. 한편, 패션에서의 에코경향은 모피의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하여(한소원, 1995), 직물 생산공정, 리싸이클링 라이프사이클(Recycling Life Cycle)의 생산이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마케팅 활동 등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제품 전과정'을 고려한 에코디자인의 개념 도입으로 근본적인 계획에서부터 활용에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Black, 2008). 최근, 에코디자인은 웰빙테마와 더불어 '지속가능성'이란 개념과 함께 기능성과 실용성, 건강성을 추구함으로써 21세기 패션의 새로운 스타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에코디자인은 단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이슈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와 문화를 반영한 반드시 지향해야 할 가치적인 필수조건으로 각인되고 실천됨으로써, 보다 인간적인 측면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코디자인의 개념을 21세기의 미래를 향한 근본적인 친환경적 디자인 방법론으로, 환경에 미치는 윤리적인 책임감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미래의 지구생태 유지를 위한 환경 친화적인 제품 개발과 그에 관련되는 모든 디자인 과정을 총칭하는 보존과 창조의 진보된 통합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여기에는 에콜로지, 그린디자인, 지속가능한 디자인, 웰빙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이론적 연구를 통해 살펴본 에코디자인의 개념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에코디자인의 유형 및 특성

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의식있는 소비자들의 의식고조로 인해 정부, 기업,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윤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보호론적 접근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에코디자인의 선행연구 중 유형별 분류들을 살펴보면 서문정(2003)은 자원의 절약과 오염물질의 감축, 수명의 연장과 재사용, 자원의 재활용 등으로 분류하였고, 배지영(2008)은

<표 1> 에코디자인의 개념

용 어	정 의		에코디자인
에콜로지	생태계, 즉 생물과 인간의 환경관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 학문(오덤, 1993/1995)		
그 린	자원절약과 에너지 효율적인 환경적 가치를 강조하며, 산업과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환경을 고려하여 디자인한 것(Hopfenbeck, 1993; Mackenzie, 1990)		
친환경적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환경, 건강, 안전을 존중하는 디자인 활동의 시스템적 고찰로 자연과 조화된 디자인(Fiksel, 1993)	→	근본적, 윤리적인 친환경 디자인 방법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든 디자인 과정을 총칭하는 보존과 창조의 진보된 통합개념
지속가능한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의 의미로 21세기의 에코디자인의 방법론(Fuad-Luck, 2006)		
웰 빙	모든 소비영역을 포함한 개인의 복지, 안녕, 행복에 대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미숙, 2004)		

감량화 디자인, 재디자인, 다기능디자인, 사회-윤리적 디자인으로, 서현수(2005)는 기능의 효율성, 형태의 내구성, 소재의 재활용성, 건강지향성, 자연성, 토속성으로, 김수현(2007)은 효율성, 재활용성, 공정성, 절충과 복합성, 건강지향성 등으로 에코디자인의 표현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에코디자인을 실행하기 위한 디자이너의 실천방법에 따른 특성들을 에코 관련 이론가들의 유형분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코디자인은 자원과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디자인의 형태적 특성뿐만 아니라 제품의 효율성에 관계되는 개념으로 저에너지 고효율의 제품을 구상하도록 한다. 이에 따른 실천방법으로써 도시로 맥켄지(서현수에서 재인용, 2005)는 환경을 고려하는 디자인 개발 상의 4가지 유의점으로 첫째, 자연적 공예유산과 지구자원유지 가능성, 둘째, 실용성과 효율성, 셋째, 최소주의, 넷째, 다목적 적용성을 제시하였고, 파파넥(1995/1998)은 줄이기 위한 디자인이란 개념으로 제품의 수는 최소로 줄이고 삶의 질은 최대화하는 삶의 방식을 제안한다.

둘째, 에코디자인은 제품수명장기화, 즉 라이프사이클을 길게 하는 것으로 재활용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파파넥(1995/1998)의 분해를 위한 디자인 개념으로, 하나의 제품이 그 수명이 다한 후에 쉽게 분해되거나 재활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의 총체적 과정을 강조하였다. 또한 맥도우, 브라운가르트(2002/2003)의 『요람에서 요람으로(Cradle to cradle)』는 4R(감소-Reduce, 재활용-Reuse, 재생-Recycle, 규제-Regulate)인 생태적 효율성 개념을 도입하여 형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활용성의 개념을 강조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심미적 가치를 지닌 디자인은 형태적 폐기를 줄임으로써 폐기물 절감 및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 이는 파파넥(1995/1998)의 생태미학의 개념으로 시간에 따른 제품의 형태적 폐기는 재료의 물리적 내구성과 형태의 내구성이 적절하게 결합해야만 디자인의 생태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조영식, 2000). Fuad-Luck(2006)의 저서 『에코디자인 핸드북(The Eco-design Handbook)』의 타임레스 스타일(Timeless style) 특성 또한 시대적 감각의 흐름을 타지 않고 전통성을 지속하는 스타일로 제품의 수명연장 또는 소형화, 경량화하는 것이다.

넷째, 에코디자인은 특히 '인간과 환경의 건강'을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인, 즉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파파넥(1995/1998)의 사회환원적인 측면의 디자인은 사용자에게 맞춤형 디자인을 추구하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소수를 위한 디자인을 반영하여 인간의 건강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권영걸(2001)은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전체의 공동선 지향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인 인간의 건강과 편리를 위한 인간중심적 윤리관을 지향하는 디자인 사상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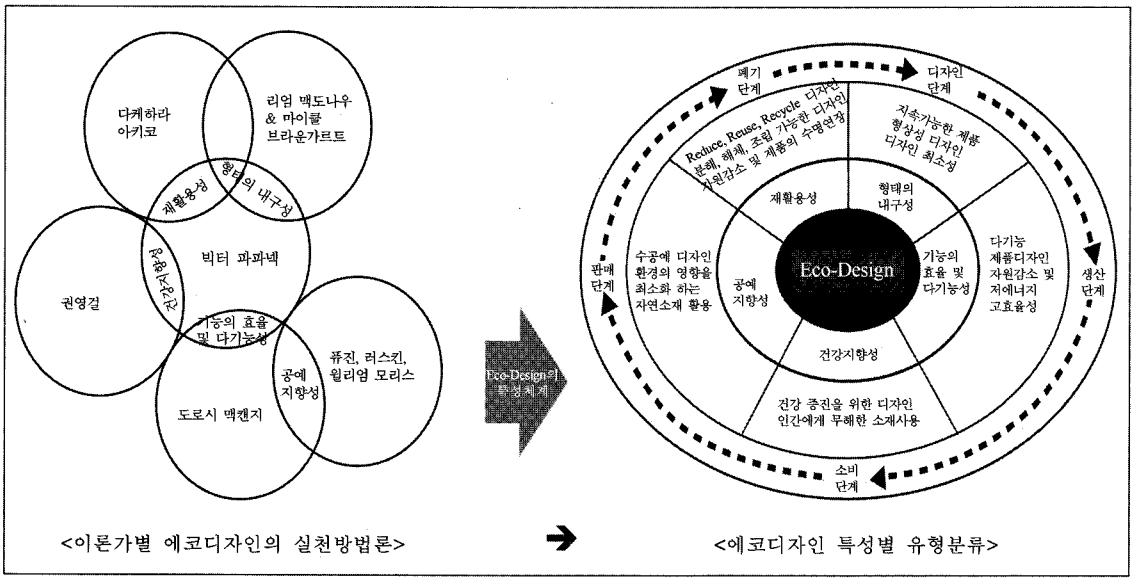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에코디자인의 특징은 공예지향적 요소로, 이는 에콜로지와 환경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19세기 모던 디자이너들 오거스터스 웰비 노스모어 퓨진(Augustus Welby Northmore Pugin), 존 러스킨(John Ruskin),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태도와 기계에 대비되는 수공의 지위로 재료의 진실성과 같은 미학적-도덕 원칙을 고수하였고, 특히 러스킨은 모든 예술과 디자인은 자연의 학습에 기초해야 한다고 믿고 많은 녹색인들과 예찬하는 태도를 공유하였는데(휘틀리, 1997/2004), 이는 디자인에서 자연성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에코디자인을 위한 이론가들의 실천방법을 살펴본 결과, 에코디자인의 유형은 기능의 효율 및 다기능성, 형태의 내구성(디자인 최소성), 재활용성, 건강지향성, 공예지향성 등 5가지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계의 전문가가 제안한 실천방법과 함께 이론가들의 주장 또한 그 맥락을 같이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가들의 제안에 의한 에코디자인의 실천방법론과 에코디자인의 특성별 유형분류는 <그림 1>과 같다.

III. 패션에 나타난 에코디자인의 역사적 변천

패션에 나타난 에코디자인은 환경보호운동과 새로운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해 그 개념과 의미가 반영되어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에코 룩의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발전되어 전개되었으며, 이를 앞서 살펴본 에코디자인의 유형별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코패션은 1960년대 말 자연회귀와 환경보호운동을 배경으로 자수나 손뜨개, 패치워크 등 수작업이 부활된 전원풍의 히피 룩과 소박하고 토속적인 에스닉 룩으로 표현(정삼호, 2000)되어 공예지향적인 측면의 자연친화성을 추구하였고, 1970년대의 낡은 의



<그림 1> 에코디자인의 유형 및 특성

복을 재활용한 펑크패션, 80년대의 천연소재와 천연염색이 선호된 실용적인 에콜로지 스타일과 1990년대의 낡고 쓸모없는 중고의류를 재활용한 그런지 스타일로 전개되었다(서문정, 2003). 70년대 펑크 룩, 90년대 그런지 룩과 빈티지 룩은 꼴라주, 찢기, 구멍 뚫기, 패치워크, 레이어드 등의 표현기법(김문숙, 최나영, 1998)으로 재활용성 측면의 자연스럽고 오래 된 듯한 형태와 색상을 통해 자원절약과 인간성 회복을 모색하였고,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의 에콜로지 룩은 전통과 전원생활에 대한 향수로 핸드메이드 느낌의 수예, 패치워크, 손뜨개, 니트 등 정서적인 자연주의(천유경, 1992)를 반영한 원시주의, 민속풍, 자연주의를 포함한 공예지향성 측면의 에코패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에콜로지의 영향과 더불어 패션분야에서 레트로가 시작되었고, 이는 1990년대의 네오히피 룩으로 과거의 히피패션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실용적이고 낡고 쓸모없는 옷을 조합함으로써(배지영, 2008), 공예지향성과 재활용성 측면의 자연의 대한 그리움과 자원절약을 나타내었다. 또한 젠 룩은 단순하고 절제된 표현의 미니멀리즘의 형식을 취함으로써(조정미, 김예형, 2000), 형태의 내구성을 반영한 에코패션으로 생태학적인 관심과 함께 인간 내면의 세계를 추구하였다.

한편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의 에콜로지 룩이 2000년대로 오면서 에코패션으로 발전되었고(허혜진, 김영인, 2007), 특히 오가닉 트렌드의 부상과 함께 인간 본성에 바탕을 둔 테크놀로지에 의한 자연소재 개발의 가속화, 수공예를 통한 자연의 재해석, 자연적인 형태와 질감을 소박한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김희연, 김영인, 2006). 이는 새로운 사회, 문화적 현상인 웰빙트렌드의 확산으로 윤리적인 웰빙패션과 더불어 테크놀로지가 믹스된 기능성과 실용성, 건강성을 강조한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2000년대의 에코패션경향은 트렌스포머블 룩(Transfomable look)으로 한 가지 의복이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변형되어 인간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위한 다기능성이 고려된 것을 의미하며(나영원, 2003; 박수민, 유영선, 2008; 서현수, 2005), 기능의 효율 및 다기능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미니멀리즘 룩(Minimalism look)과 클래식 룩(Classic look)은 절제된 스타일로 단순성과 순수성, 기능적인 형태를 통해 지속가능성이 고려된 것을 의미(신혜순, 2003; 이연희 외, 2007; 허혜진, 김영인, 2007)하며, 형태의 내구성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리디자인 룩(Redesign look)은 경제적인 요소들과 에너지의 효율성이 고려된 90년대의 친환경디자인에서 계속되어진 재활용패션과 유사한 개념을 의미한다(김수현, 2007; 배지영; 2008).

<표 2> 패션에 나타난 에코디자인의 유형별 역사적 변천

연 도	유형분류	조형적 특성	색채경향	내적 의미	대표적인 룩과 스타일
1960년대	공예지향성	패치워크, 수공예기법 중고의류 선호 민속의상의 차용 자연적 소재 사용	바랜듯한 색상 베이지, 브라운 등 내츄럴 색상 자연적인 색상 화려, 강렬한 색상조합	수공예성 자연회귀 토속성	히피 룩 에스닉 룩
1970년대	재활용성	꼴라주, 찢기, 구멍 뚫기 등 표현	자주, 검정, 분홍색 유행	상징성	펑크 룩
1980년대	건강지향성 공예지향성 재활용성	천연섬유 · 천연염료 자연스러운 실루엣 패치워크, 레이어드 스타일	흰색, 아이보리, 소색 내츄럴 색상 바랜듯한 색상과 원색의 조화	자연친화성 인간성 회복 원시성 수공예성	에콜로지 룩 그런지 룩 빈티지 룩
1990년대	공예지향성 재활용성 형태의 내구성	여러 가지 스타일과 융합 로맨틱한 스타일 간결하고 절제된 스타일	그레이시, 소프트 톤의 다양한 색상 단색, 무채색	과거에 대한 그리움 자원절약 순수성, 절제성	네오히피 룩 젠 룩
2000년대	기능의 효율 및 다기능성	하나의 옷으로 다양한 효과 테크놀로지 결합	원색, 다양한 색상	자원절약 수명연장 다변형, 다기능	트렌스포머블 룩
	형태의 내구성	절제, 단순한 형태 전통적 기본적인 형태 디자인 최소화	전통적인 패턴 단색, 무채색	순수성 지속가능성	미니멀리즘 룩 클래식 룩
	재활용성	패치워크 수공예기법 빈티지, 구제이미지	바랜듯한 다양한 색상	자원절약 경제적 효율성	리디자인 룩
	건강지향성	자연스러운 디자인 자연이미지의 형태	내츄럴한 색상	윤리성	오가닉룩
	공예지향성	수공예적 표현방식 유연하고 편안한 형태	자연무늬의 내츄럴한 색상 민속풍의 화려한 색채	자연친화성 다문화성	내츄럴 룩 멀티컬쳐 룩

특히 웰빙트렌드가 부각되면서 이는 오가닉 룩(Oganic look)으로 제품의 사용 후 생분해 가능한 환경친화적 소재로서 현대패션산업의 환경적, 윤리적, 건강지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최해주, 이혜순, 2007). 마지막으로 내츄럴 룩(Natural look)과 멀티컬쳐 룩(Mutlcultural look)은 자연친화적 성향에 의한 디자인으로 천연소재를 사용하거나 자연이미지를 형상화한 내츄럴 룩과 멀티컬쳐 룩과 같은 수공예적 표현방식과 함께 자연회귀 본능이 그 맥락에 포함되어 있다(김수현, 2007; 김희연, 김영인, 2006). 이와 같이 패션에 나타난 에코디자인의 유형별 역사적 변천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IV. 2000년대 패션트렌드에 나타난 에코디자인의 색채경향

본 장에서는 2000년대 패션트렌드에 나타난 에코경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에코색채경향의 연도별 변화추이와 유형별 색채경향의 흐름을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색채이미지를 분석하였다.

1. 연도별 에코색채경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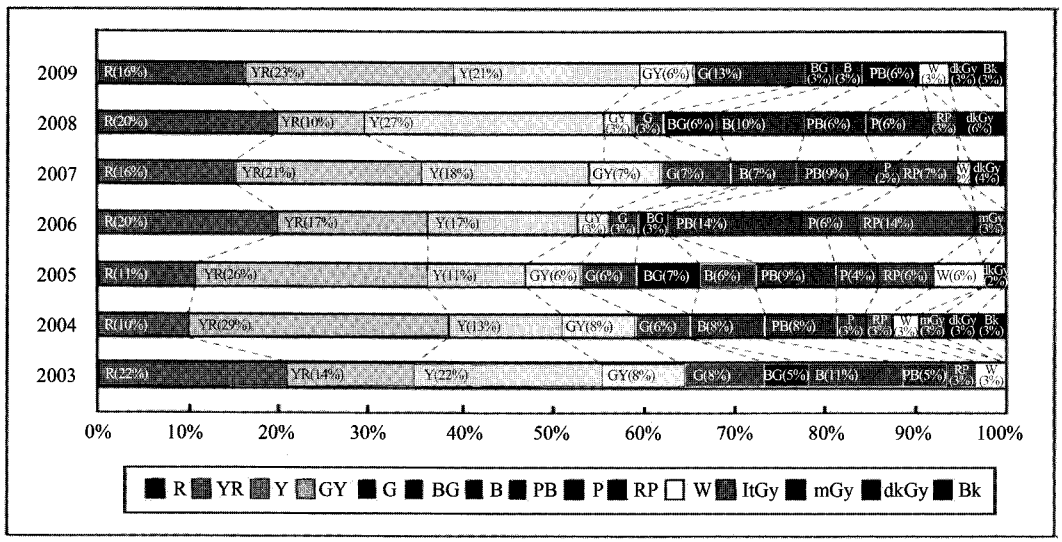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에코디자인의 용어개념<표 1>과 에코디자인 유형<그림 1>의 키워드를 기준으로 패션트렌드의 나타난 에코테마를 선정한 다음, 여기에 제시된 팬톤컬러를 컬러라이브러리시스템을 통해 먼셀색상과 PCCS 색조로 그 값을 추출하여 2003년 S/S부터 2009년 F/W까지의 에코색채의 색상과 색조의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였다.

1) 에코색채의 색상(Hue)분포

패션트렌드에 제안된 에코경향의 팬톤컬러를 먼셀 10색상과 무채색으로 분류하여 색상분포<표 3>와 같이 살펴본 결과, 전체 266색상 중 유채색 248개(93%)

<표 3> 패션트렌드에 나타난 에코색채의 색상빈도(2003 S/S~2009 F/W) (단위: 빈도(%))

연 도	합 계	유 채 색										무 채 색			
		R	YR	Y	GY	G	BG	B	PB	P	RP	W	mGy	dkGy	Bk
'03	37(100)	8(22)	5(14)	8(22)	3(8)	3(8)	2(5)	4(11)	2(5)		1(3)	1(3)			
'04	37(100)	4(10)	11(29)	5(13)	3(8)	2(6)		3(8)	3(8)	1(3)	1(3)	1(3)	1(3)	1(3)	1(3)
'05	54(100)	6(11)	15(26)	6(11)	3(6)	3(6)	4(7)	3(6)	5(9)	2(4)	3(6)	3(6)		1(2)	
'06	30(100)	6(20)	5(17)	5(17)	1(3)	1(3)	1(3)		4(14)	2(6)	4(14)		1(3)		
'07	44(100)	7(16)	9(21)	8(18)	3(7)	3(7)		3(7)	4(9)	1(2)	3(7)	1(2)		2(4)	
'08	31(100)	6(20)	3(10)	8(27)	1(3)	1(3)	2(6)	3(10)	2(6)	2(6)	1(3)			2(6)	
'09	33(100)	5(16)	8(23)	7(21)	2(6)	4(13)	1(3)	1(3)	2(6)			1(3)		1(3)	1(3)
	266(100)	42(15)	56(21)	47(18)	16(6)	17(6)	10(4)	17(6)	22(10)	8(3)	13(5)	6(2)	2(0.5)	7(3)	2(0.5)
전체 합계		248(93)							18(7)						



<그림 2> 연도별 에코색상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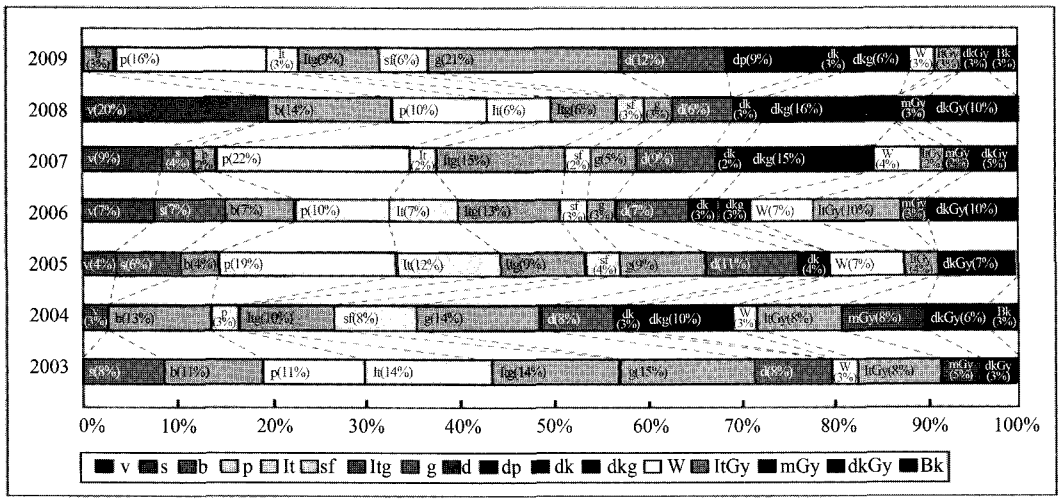
와 무채색 18개(7%)로 나타났다. 연도별 에코색상의 변화추이<그림 2>는 특히 R, YR, Y계열에 편중된 색상분포를 보이며, YR계열은 2006년 감소하였던 대신 Y, R, PB색상이 증가하다가 2009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N계열은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 W와 dkGy색상이 크게 부각되었고, 꾸준한 증가추세이다. G계열은 2009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PB와 N계열은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추세로 N계열은 W와 dkGy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소영(1995)의 선행연구에서 뉴트럴(neutral)계열의 화이트, 크림화이트, 내츄럴 베이지, 스킨 베이지의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색들이 주로 사용되었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R, YR, Y계열은 에코패션색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 에코색상으로 자주 사용되지 않았던 PB와 P, B와 N계열이 부각되고 있다. YR색상은 2006년 감소하였던 대신 Y, R, PB색상이 증가하다가 2009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N계열은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 W와 dkGy색상이 크게 부각되었고, 꾸준한 증가추세이다.

2) 에코색채의 색조(Tone)분포

패션트렌드에 제안된 에코경향의 팬톤컬러를 PCCS 색조분류법에 의한 12색조 영역과 무채색으로 분류하여 <표 4>와 같은 분포로 나타내었다. 이에 나타난 연도별 에코색조의 변화추이<그림 3>는 전반적으로 p, g, ltg, d계열의 색조가 꾸준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표 4> 패션트렌드에 나타난 에코색채의 색조빈도(2003 S/S~2009 F/W) (단위: 빈도(%))

연도	합계	유채색												무채색				
		v	s	b	p	lt	ltg	sf	g	d	dp	dk	dkg	W	ltGy	mGy	dkGy	Bk
'03	37(100)		3(8)	4(11)	4(11)	5(14)	5(14)		6(15)	3(8)				1(3)	3(8)	2(5)	1(3)	
'04	37(100)	1(3)		5(13)	1(3)		4(10)	3(8)	5(14)	3(8)		1(3)	4(10)	1(3)	3(8)	3(8)	2(6)	1(3)
'05	54(100)	2(4)	3(6)	2(4)	10(19)	7(12)	5(9)	2(4)	5(9)	6(11)		2(4)		4(7)	2(4)		4(7)	
'06	30(100)	2(7)	2(7)	2(7)	3(10)	2(7)	4(13)	1(3)	1(3)	2(7)		1(3)	1(3)	2(7)	3(10)	1(3)	3(10)	
'07	44(100)	4(9)	2(4)	1(2)	10(22)	1(2)	6(15)	1(2)	2(5)	4(9)		1(2)	6(15)	2(4)	1(2)	1(2)	2(5)	
'08	31(100)	6(20)		4(14)	3(10)	2(6)	2(6)	1(3)	1(3)	2(6)		1(3)	5(16)			1(3)	3(10)	
'09	33(100)			1(3)	5(16)	1(3)	3(9)	2(6)	7(21)	4(12)	3(9)	1(3)	2(6)	1(3)	1(3)		1(3)	1(3)
	266(100)	15(6)	10(4)	19(7)	36(13)	18(7)	29(10)	10(8)	27(10)	24(9)	3(0.5)	7(2)	18(7)	11(4)	13(4)	8(3)	16(6)	2(0.5)
전체 합계		216(81)												50(19)				



<그림 3> 연도별 에코색조의 변화추이

선명하고 강렬한 톤인 v, s, b계열 또한 2006년부터 증가추세로 특히 v가 부각되다가 2009년에 감소하면서 b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v와 b계열이 부각되고 있는 에코색조경향은 허혜진, 김영인(2007)연구의 중채도 이상 고채도의 색조는 에코패션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캠핑, 캐러번(Caravan) 등의 에코로직 아웃도어 라이프가 성행하면서 스포티브한 아웃도어에 Vivid한 톤이 부각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N계열은 2004년 크게 부각되었으며, 2007년부터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2. 유형별 에코색채경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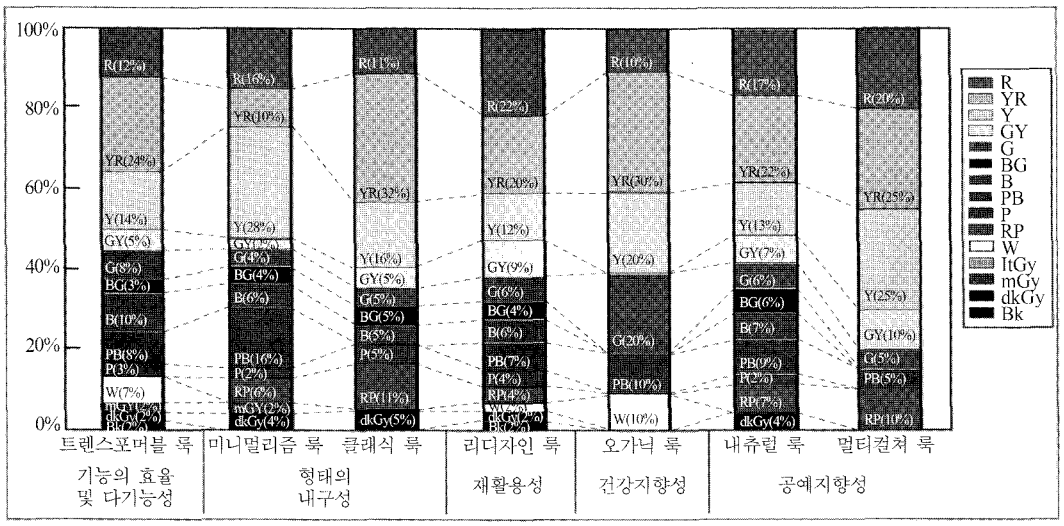
패션트렌드에 제시된 컬러의 컨셉을 중심으로 앞서 언급한 에코디자인의 5가지 유형을 2000년대 패션디자인의 의미 및 특성과 관련하여 기능의 효율 및 다기능성은 트렌스포머블 룩으로, 형태의 내구성은 미니멀리즘 룩과 클래식 룩, 재활용성은 리디자인 룩, 건강지향성은 오가닉 룩, 공예지향성은 내츄럴 룩과 멀티컬쳐 룩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색상과 색조를 분석하였다.

1) 유형별 색상(Hue)분포

패션트렌드에 나타난 유형별 색상빈도<표 5>는 에코디자인의 5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2000년대 에코 룩의 유형별 색상 분포<그림 4>와 같이 나타내었다. 기능의 효율 및 다기능성의 색상경향은 YR(24%), Y(14%), R(12%)계열과 무채색 W(7%)에 높은 분포를

<표 5> 유형에 나타난 색상빈도(2003 S/S~2009 F/W) (단위: 빈도(%))

유 형	에코 룩	합 계	유 채 색										무 채 색				
			R	YR	Y	GY	G	BG	B	PB	P	RP	W	ltGy	mGy	dkGy	Bk
기능의 효율 및 다기능성	트렌스포머블 룩	59(100)	7(12)	14(24)	8(14)	3(5)	5(8)	2(3)	6(10)	5(8)	2(3)		4(7)		1(2)	1(2)	1(2)
형태의 내구성	미니멀리즘 룩	50(100)	8(16)	5(10)	14(28)	1(2)	2(4)	2(4)	3(6)	8(16)	1(2)	3(6)			1(2)	2(4)	
	클래식 룩	19(100)	2(11)	6(32)	3(16)	1(5)	1(5)	1(5)	1(5)		1(5)	2(11)				1(5)	
재활용성	리디자인 룩	54(100)	12(22)	11(20)	7(12)	5(9)	3(6)	2(4)	3(6)	4(7)	2(4)	2(4)	1(2)			1(2)	1(2)
건강지향성	오가닉 룩	10(100)	1(10)	3(30)	2(20)		2(20)			1(10)			1(10)				
공예지향성	내츄럴 룩	54(100)	9(17)	12(22)	7(13)	4(7)	3(6)	3(6)	4(7)	5(9)	1(2)	4(7)				2(4)	
	멀티컬쳐 룩	20(100)	4(20)	5(25)	5(25)	2(10)	1(5)			1(5)		2(10)					
전체 합계		266(100)	43(16)	56(21)	46(17)	16(6)	17(6)	10(4)	17(6)	24(9)	7(3)	13(5)	6(2)		2(1)	7(3)	2(1)
			249(93)							17(7)							



<그림 4> 유형별 색상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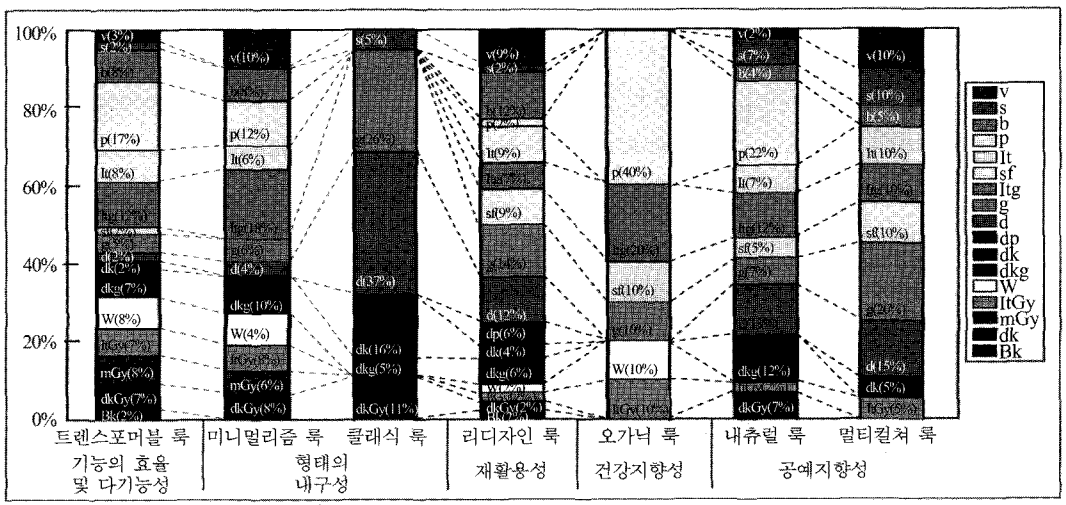
보이며, 기능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트렌스포머블 룩으로 표현되었다. 형태의 내구성 측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타임레스 베이직(Timeless Basic) 스타일인 미니멀리즘 룩과 클래식 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Y, R, YR계열와 무채색 dkGy가 높게 나타났다. 재활용성은 빈티지적인 리디자인 룩으로 해석되어 R(22%), YR(20%), Y(12%)계열을 중심으로 한색계열에도 색상이 고루 분포하였으며, 건강지향성의 오가닉 룩은 YR(30%), Y,G(20%) R, PB, W(10%)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공예지향성은 자연성을 추구하는 내츄럴 룩과 복합적인 요소를 융합한 멀티컬쳐 룩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분포 순서는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YR, Y, R에 편중된 색상분포를 보이며 PB, RP계열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별 색상분포는 전반적으로 Y, YR, R계열에 집중되었고, 이를 제외한 유형별 색상특징으로 기능의 효율 및 다기능성은 B와 PB, 형태의 영구성은 N, 재활용성은 Bk, 건강지향성은 W, 공예지향성은 RP색상으로 다른 유형과 구분되고 있다. 특히 N계열은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 공예지향성의 멀티컬쳐 룩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 부합되면서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을 표현하며, 에코패션이 모던한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유형별 색조(Tone)분포

에코 패션트렌드에 나타난 유형별 색조빈도<표 6>와 유형별 색조분포<그림 5>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

<표 6> 유형에 나타난 색조빈도(2003 S/S~2009 F/W) (단위: 빈도(%))

유 형	에코 룩	합 계	유 채 색												무 채 색				
			v	s	b	p	lt	ltg	sf	g	d	dp	dk	dkg	W	ltGy	Gy	dkGy	Bk
기능의 효율 및 다기능성	트렌스포머 룩	59(100)	2(3)	1(2)	5(8)	10(17)	5(8)	7(12)	1(2)	3(5)	1(2)		1(2)	4(7)	5(8)	4(7)	5(8)	4(7)	1(2)
형태의 내구성	미니멀리즘 룩	50(100)	5(10)		4(8)	6(12)	3(6)	9(18)		3(6)	2(4)			5(10)	2(4)	4(8)	3(6)	4(8)	
	클래식 룩	19(100)		1(5)						5(26)	7(37)		3(16)	1(5)				2(11)	
재활용성	리디자인 룩	54(100)	5(9)	1(2)	7(12)	1(2)	5(9)	4(7)	5(9)	8(14)	6(12)	3(6)	2(4)	3(6)	1(2)	1(2)		1(2)	1(2)
건강 지향성	오가닉 룩	10(100)				4(40)		2(20)	1(10)	1(10)					1(10)	1(10)			
공예 지향성	내츄럴 룩	54(100)	1(2)	4(7)	2(4)	12(22)	4(7)	6(12)	3(5)	4(7)	7(13)			6(12)		1(2)		4(7)	
	멀티컬쳐 룩	20(100)	2(10)	2(10)	1(5)		2(10)	2(10)	2(10)	4(20)	3(15)		1(5)			1(5)			
전체 합계		266(100)	15(6)	9(3)	19(7)	33(11)	19(7)	30(11)	12(5)	28(11)	26(10)	3(1)	7(3)	19(7)	9(3)	12(5)	8(3)	15(6)	2(1)
			220(82)												46(18)				



<그림 5> 유형별 색조분포

능의 효율 및 다기능성의 색조분포는 p(17%), lt(12%)를 중심으로 특히 N(19%)계열이 부각되었고, 고채도에서 저채도까지 다양한 색조가 나타났다. 형태의 내구성 측면으로 미니멀리즘 룩의 색조분포는 ltg(18%), p(12%), v(10%), dkg(10%) 순으로 나타났으며, N계열의 고른 분포를 특징으로 기능의 효율 및 다기능성의 색조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클래식 룩은 d(37%), g(26%), dk(16%) 순으로 미니멀리즘 룩보다 좀 더 어두운 색조를 띄며, 색상과는 달리 색조는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재활용성은 빈티지적인 바랜듯한 감각을 표현할 수 있는 g(14%), b(12%), d(12%)를 중심으로 v, dkg, Bk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로 나타났으나, N계열은 낮게 나타났으며, 건강지향성은 p(40%), ltg(20), W(10%) 순으로 밝고 부드러운 색조가 높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예지향성의 내츄럴 룩은 p(22%), d(13%), ltg(12%), dkg(12%) 순으로 중채도 이하의 저채도에 분포하였고, 멀티컬쳐 룩은 다소 어두운 계열인 g(20%), d(15%)와 함께 고명도인 v, s, 중명도인 lt, ltg, sf의 다양한 색조로 고루 분포하였다. 이러한 유형별 색조경향의 트렌스포머블 룩과 미니멀리즘 룩은 테크놀로지, 미니멀리즘이 부합된 복합적인 경향으로 v부터 N까지의 색조가 단색 위주와 액센트 배색으로 표현되었고, 리디자인 룩은 여러가지 요소가 믹스된 자유로운 색채배색으로 인해 고른 분포의 다양한 색조경향이 나타났다. 오가닉 룩과 내츄럴 룩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밝은 색조로, 멀티컬쳐 룩은 다소 어두운 계열과 함께 강렬하고, 선명한 색조로 민속풍의 감각을 표현하고 있다.

3. 2000년대 패션트렌드에 나타난 에코디자인의 색채이미지 분석

에코 색채이미지 분석방법은 삼성디자인넷의 인플루언스(Influence)에 나타난 에코트렌드 테마로부터 에코 관련 형용사를 추출한 다음, 본 연구를 위해 (주)IRI 디자인연구소에서 개발한 색채이미지 스케일과 패션이미지를 혼합, 절충한 이미지 스케일을 개발하여 포지셔닝함으로써 연도별, 유형별로 에코색채이미지를 파악하였다. 이는 IRI색채이미지 스케일이 다양한 분야의 포괄적인 색채이미지 분석도구로 사용됨에 따라, 패션용도의 색채이미지 분석도구로 적용하기에 구체적인 설명이 다소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한글과 영어로 혼용되어 있는 IRI색채이미지 스케일을 중심으로 이와 적합한 패션이미지 용어를 혼합, 절충하여 색채이미지 분석도구로 활용하였다. 여기서 본 연구를 위한 색채이미지 분석 스케일 개발에 사용된 패션이미지는 양리나, 최나영(2000)의 감성적 요인에 따라 분류한 패션이미지, 신향선(2003)의 패션이미지를 종합한 것으로, IRI색채이미지에 보편적인 패션이미지로 수정하여, romantic, ethnic, classic 이미지를 추가하였다. 에코디자인의 색채이미지 분석도구는 이미지 축에 따른 세부형용사를 통해 포지셔닝함으로써 색채이미지 분석 스케일<그림 6>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연도별 색채이미지 분석

인플루언스(Influence)에 나타난 에코이미지와 관련된 전체 형용사 1127개를 추출하여, '부드러운-딱딱한'과 '동적인-정적인'을 기준으로 패션이미지에서 분류한 형용사 빈도<표 7>를 이미지 스케일에 포지셔닝하여 연도별 색채이미지를 <그림 7>와 같이 나타내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에코이미지는 casual(20%), modern(18%), natural(18%) 순으로 높게 나타나 공통적인 스케일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낮은 분포를 보인 이미지는 dandy(0.3%), formal(0.4%), pretty(0.5%) 순으로 스케일 상의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에코경향의 연도별 색채이미지를 세부적인 형용사와 관련하여 살펴 본 결과, natural 이미지는 '자연적인, 감성적인, 전원적인, 편안한'으로, 대표적인 에코색채인 에크루, 베이지계열의 내츄럴한 색채로 표현하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높게 나타났다. casual 이미지는 '새로운, 경쾌한, 다양한, 즐거운'으로, 2003년과 2004년에 크게 부각되었고, 현재는 v색조의 R, B의 증가추세로 에코색채에 나타나고 있다. modern 이미지는 '진보적인, 기능적인, 단순한' 형용사로 대변되며, N계열의 증가로 미래적이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에코색채 경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에코 색채이미지는 natural, casual, modern 이미지를 중심으로, 복합적인 경향으로 나타나 원색 위주의 casual 이미지는 모던화된 부드러운 색채로, natural 이미지는 차분한 색채에서 밝고 선명한 색채로, modern 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며, 미래지향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유형별 색채이미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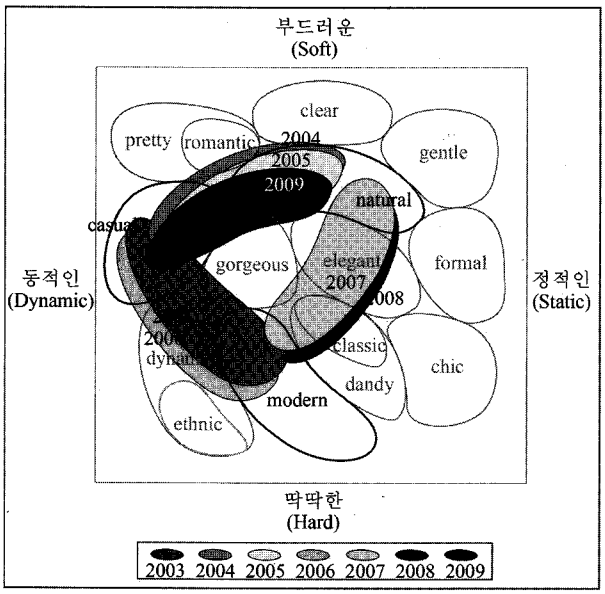
유형별로 나타난 색채이미지는 패션트렌드의 인플

pretty	romantic	casual	clear		natural	elegant	gentle	
귀여운 어린	사랑스런 여성스런 감성적인 복고적인 달콤한	즐거운 자유로운 재미있는 경쾌한 기능적인 선명한 다양한 생동감있는 산뜻한 밝은 새로운	맑은 깨끗한 신선한 가벼운 투명한 단순한 섬세한 부드러운	부드러운 (Soft) 동적인 (Dynamic) 정적인 (Static) 딱딱한 (Hard)	자연적인 (천연의) 자연스런 소박한 전원적인 건강한 그리운 (노스텔직) 편안한 온화한 친근한 감성적인 풍성한	우아한 품위있는 아름다움 여성스런 고상한 성숙한 깊이있는 고급스런 차분한 멋진	순수한 안정된 연약한 약한 매끄런 유연한	
dynamic	ethnic	gorgeous	modern		formal	chic	classic	dandy
개성적인 독창적인 강렬한 강한 인공적인 대담한 활동적인 액티브한	거친 와일드한 민속적인 수공예적 원시적인 토속적인 소박한	환상적인 장식적인 복잡한 매력적인 여유있는 성숙한 화려한	냉정한 실용적인 진보적인 견고한 테크놀로지 (하이테크) 도시적인 현대적인 기능적인 심플한 단순한 미니멀적인		엄숙한 귀중한 장엄한 권위적 엄격한	세련된 동양적 수수한 차분한 미묘한 정적인	전통적인 고전적인 깊은 보수적인 오래된 트레디셔널한	안정된 고상한 점잖은 건실한 중후한 지적인

<그림 6> 색채이미지 분석 스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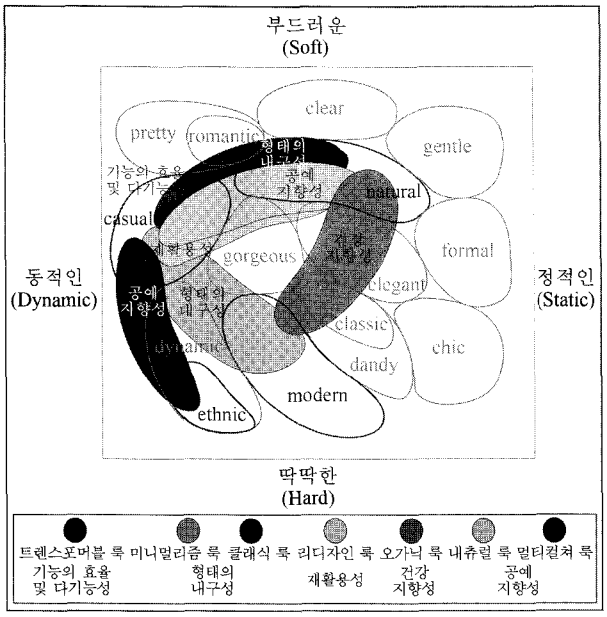
<표 7> 패션트렌드에 나타난 에코 관련 형용사 빈도(2003 S/S~2009 F/W) (단위: 빈도(%))

연도	합계	Dynamic-Soft (동적인-부드러운)				Dynamic-Hard (동적인-딱딱한)				Static-Soft (정적인-부드러운)			Static-Hard (정적인-딱딱한)			
		pretty	roman-tic	casual	clear	dyna-mic	ethnic	gorge-ous	modern	natural	elegant	gentle	formal	chic	classic	dandy
'03	197(100)		6(3)	43(22)	18(9)	10(5)	14(7)	17(8)	31(16)	12(6)	9(5)	8(4)		2(1)	27(14)	
'04	185(100)	4(2)	7(4)	44(24)	12(6)	14(7)	3(2)	10(5)	26(14)	28(15)	14(8)	5(3)	2(1)	1(1)	15(8)	
'05	179(100)		5(3)	44(25)	18(10)	15(8)	6(3)	10(6)	33(18)	38(21)		4(2)		1(1)	5(3)	
'06	144(100)		5(3)	24(17)	7(5)	10(7)	11(8)	12(8)	30(21)	18(13)	9(6)	2(1)	3(2)	3(2)	10(7)	
'07	207(100)	2(1)	2(1)	27(13)	18(9)	10(5)	18(8)	16(8)	43(21)	32(15)	4(2)	3(1)		20(10)	10(5)	2(1)
'08	133(100)		4(3)	23(17)	3(2)	8(6)	9(7)		28(21)	45(34)	3(2)	4(3)		1(1)	3(2)	2(2)
'09	82(100)		6(8)	13(16)	5(6)	1(1)	7(9)	2(2)	10(12)	27(33)	1(1)	3(4)		1(1)	5(6)	1(1)
	1127(100)	6(1)	35(3)	218(19)	81(7)	68(6)	68(6)	67(6)	201(18)	200(18)	40(3)	29(3)	5(0.5)	29(3)	75(6)	5(0.5)
전체 합계		340(30)				404(36)				269(24)			114(10)			



<그림 7> 연도별 에코색채이미지

루언스에 나타난 에코테마를 선정한 후, 에코와 관련된 이미지의 형용사를 추출하여 <그림 8>과 같은 분포로 파악할 수 있다. 기능의 효율 및 다기능성의 색채이미지는 '경쾌한, 모던한, 내츄럴한, 다이나믹한, 자유로운, 스포티한' 등의 형용사군이 갖는 casual(23%), modern(20%), natural(14%)의 이미지 유형으로 v한 R과 B, N색채로 밝고 모던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형태의 영구성 측면의 색채이미지는 '단순한, 깨끗한, 심플한, 부드러운, 클래식한, 새로운' 등의 형용사군을 갖는 modern(28%), casual(17%), natural(11%), clear(9%), classic(5%) 이미지 유형에 속하며, 이는 N계열과 g색조로 주로 나타나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재활용성의 색채이미지는 '오래된, 자연적인, 새로운, 전통적인, 재미있는, 개성적인' 등의 형용사군을 갖는 casual(30%), natural(14%), dymanic(12%) 이미지 유형에 속하며, Bk와 강한 대비를 이루는 R, YR, Y, PB 등의 원색을 사용하여 강렬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건강지향성의 색채이미지는 '자연적인, 편안한, 전통적인, 감성적인, 새로운, 건강한, 진보적인' 등의 형용사군을 포함한 natural(44%),



<그림 8> 유형별 에코색채이미지

modern(19%), clear(8%), casual(8%) 이미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beige에서 brown에 걸친 색과 함께 p, g 등 부드러운 색조로 편안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공예지향성의 색채이미지는 '자연적인, 친근한, 풍성한, 수공예적인, 원시적인, 토속적인, 전통적인, 오래된, 소박한' 형용사군이 갖는 natural(24%), casual(16%), ethnic(12%) 이미지 유형 순으로 YR, Y, R색상이 g, d 중심의 중명도 저채도 색채로 자연에서 느껴지는 소박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1960년대부터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되어 이와 관련된 국제무역규제의 강화와 새로운 문화트렌드인 웰빙과 로하스의 확산으로 21세기에 와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친환경적인 디자인 방법론이 강조되고 있다. 에코디자인은 그린디자인, 에콜로지디자인,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기본원리와 개념을 적용한 21세기에 지칭되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고려한 생태학적인 인간과 환경의 윤리적인 공존을 목표로 진보된 통합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에코디자인 개념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의 패션트렌드에 나타난 에코색채경향과 그에 따른 친환경적인 색채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에코디자인의 향방을 예측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코디자인의 유형은 기능의 효율 및 다기능성, 형태의 내구성, 재활용성, 건강지향성, 공예지향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2000년대 에코 룩은 다음과 같다. 기능의 효율 및 다기능성은 제품의 수명연장 및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변형이 고려된 트렌스포머블 룩으로, 형태의 영구성은 지속가능성이 고려된 미니멀리즘 룩과 클래식 룩으로 나타났으며, 재활용성은 제품의 재사용 및 재활용 등의 자원절약이 고려된 리디자인 룩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건강지향성은 생태학적 윤리관을 바탕을 둔 오가닉 룩으로, 공예지향성은 내츄럴 룩과 멀티컬쳐 룩으로 자연친화적인 성향에 의한 문화적 다양성이 표현되었다.

둘째, 패션트렌드에 나타난 에코색채경향의 주요한 색상의 분포는 YR(21%), Y(18%), R(16%), PB(8%), N(7%)계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YR, Y, R계열은 에크루와 베이지계열의 내츄럴한 색상으로 대두되어 대표적인 에코색채로 표현되었고, 큰 비중을 차지했던 YR계열은 2006년, 2008년 감소하면서 Y, R, PB계열이 큰 폭으로 증가, 2009년 G계열이 비약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N계열의 W와 dkGy은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 2004년 크게 부각되면서 꾸준히 제시

되고 있다.

셋째, 패션트렌드에 나타난 에코색채의 색조분포는 p(14), ltg(11%), g(10%), d(9%), b(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채도 중명도 이상의 p, ltg, g색조는 연도에 상관없이 꾸준히 높은 분포를 보였고, 에코색채에 선호되지 않았던 고채도의 v는 2004년 높은 증가추세로 s, b와 함께 선명하고 강한 색채들로 에코패션에 부각되었다. 또한 N의 분포는 2004년, 2006년 큰 분포로 나타나다 감소를 보이는 대신 저명도의 dkg, dp색조가 증가추세이다.

넷째, 유형별 에코색채의 색상은 전반적으로 YR, R, Y계열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기능의 효율 및 다기능성의 트렌스포머블 룩은 YR(24%), Y(14%), R(12%), B(10%)계열 순으로, 형태의 영구성의 미니멀리즘 룩은 Y(28%), R, PB(16%)계열 순으로, 클래식 룩은 YR(32%), Y(16%), R, RP(11%)계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재활용성의 리디자인 룩은 R(22%), YR(20%), Y(12%), Gy(9%)계열 순으로, 건강지향성의 오가닉 룩은 YR(30%), Y, GY(20%)계열 순으로, 공예지향성의 내츄럴 룩은 YR(22%), R(17%), Y(13%), PB(9%)계열 순으로, 멀티컬쳐 룩은 YR, Y(25%), R(20%), GY, RP(10%)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유형별 색조분포로 기능의 효율 및 다기능성의 트렌스포머블 룩은 p(17%), ltg(12%), b, lt, W, mGy(8%) 순으로 고채도에서 저채도까지 다양한 분포로 나타났다. 형태의 내구성의 미니멀리즘 룩은 ltg(18%), p(12%), dk, v(10%)와 함께 N(20%)의 색조가 높게 나타났고, 클래식 룩은 d(37%), g(26%), dk(16%), dkGy(11%) 순으로 저채도에 집중되었다. 재활용성의 리디자인 룩은 g(14%), d, b(12%), v, sf(9%) 순으로 다양한 색조가 고루 분포하였고, 건강지향성의 오가닉 룩은 p(40%), ltg(20%), sf, W, ltGy(10%) 순으로 고명도에 집중되었다. 공예지향성의 내츄럴 룩은 p(22%), d(13%), ltg, dkg(12%) 순으로 멀티컬쳐 룩은 g(20%), d(15%)와 함께 v, s, lt, ltg, sf(10%)의 다양한 색조가 고루 분포하였다.

여섯째, 연도별 에코색채이미지는 natural, casual, modern 이미지가 연도에 상관없게 주를 이루며, 복합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natural 이미지는 '자연적인, 감성적인, 전원적인'으로, 내츄럴한 계열의 색채와 다문화적인 깊고 풍부한 색채이미지로 표현되었다. casual 이미지는 '새로운, 경쾌한, 다양한'으로 밝고 선명한 색채와 함께 복고적인 빈티지한 빛바랜 색채 이미지로 나타났다. modern 이미지는 '진보적인, 기능적인, 단순한'으로 뉴트럴계열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미지와 함께 에코색채의 미래적인 경향으로 표현되었다.

일곱째, 유형별 색채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기능의 효율 및 다기능성은 casual(26%), modern(15%), natural(13%)한 이미지로, 형태의 영구성은 formal(16%), elegant(13%), modern(13%)한 이미지로, 재활용성은 casual(24%), natural(19%), modern(12%)한 이미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건강지향성은 natural(28%), dandy(11%), clear, dynamic(9%) 순으로, 공예지향성은 casual, gorgeous(16%), natural, dandy(12%) 이미지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패션에 나타난 에코디자인의 색채경향은 21세기의 진보된 패션디자인의 수단으로 자연과 인간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더욱 미래적인 디자인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듯 패션을 색채를 통해 규명한 것은 에코색채에 대한 정보제공과 이에 대한 인식의 이해를 확립하여 대중화의 매개체로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에코제품 및 환경디자인의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과 더불어 에코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대변하는 내외부적인 감각의 시각언어로 활용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패션트렌드에 제시된 에코색채경향과 그에 따른 이미지를 한정하여 분석한 것으로, 색채에 있어서 에코패션별 색채배색의 점유율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며, 차후 후속연구에서 배색분석 등의 방식으로 확대해석하여 연구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권영걸. (2001). *공간디자인 16강*. 서울: 도서출판국제.

권현정. (2002). *시각적 촉감과 색채감성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웹 기반 감성평가 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 논문.

김경희. (2007). 명품 브랜드의 상징색채이미지에 관한 연구 -루이뷔통과 구찌를 중심으로. *한국상품학회, 25*(2), 111-122.

김문숙, 최나영. (1998). 패션에 표현된 환경친화적 디자인의 특성-1990년대 이후의 국내 디자이너 작품을 중심으로-. *복식문화학회, 6*(2), 163-180.

김수현. (2007). *현대패션에 나타난 지속가능한 디자인 연구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희연, 김영인. (2006). 자연주의 복식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6*(7), 31–41.

나영원. (2003). *복식에 표현된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맥도우 윌리엄, 브라운가르트 마이클. (2002). *요람에서 요람으로*. 김은령 옮김 (2003). 서울: 에코리브르.

민지현. (2009). *한·일 실버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색채선호도 분석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수민, 유영선. (2008). 2000년대 그린디자인에 나타난 로하스 패션 특성분석. *한국의류학회지, 32*(2), 307–318.

배지영. (2008). *친환경적 패션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문정. (2003). *Eco-Fashion Design의 개념 정립과 사용자 참여프로세스의 실천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현수. (2005). *시스템, 카오스 관점에 의한 에코패션디자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신향선. (2003). *패션&뷰티를 위한 color image making*. 서울: 도서출판국제.

신혜순. (2003). *현대패션 용어사전*. 서울: 교문사.

양리나, 최나영. (2000). *패션언출*. 서울: 대왕사.

유명희. (2009). *검정색의 이미지가 제품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블랙마케팅 사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덤 유진. (1993). *생태학: 환경의 위기와 우리의 미래*. 이도원, 박은진, 송동하 옮김 (1995). 서울: 민음사.

이경미, 박영순. (2006). 한국환경색채매뉴얼을 활용한 청계천가로변 건축물외장 색채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디자인학회, 2006*(1), 73–77.

이미숙. (2004). 생활양식에서의 웰빙. *한국생활과학회지, 13*(3), 477–484.

이연희, 이현아, 박재옥. (2007). 현대패션에 나타난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한국의류학회지, 31*(1), 21–31.

전소영. (1995). *현대패션에 나타난 에콜로지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종찬. (2004). 제품디자인에 나타난 에코디자인 경향에 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지, 5*(1), 263–271.

정삼호. (2000). *현대패션모드*. 파주: 교문사.

조영식. (2000). *인간과 디자인의 교감* (개정판). 서울: (주)디자인 하우스.

조정미, 김예영. (2000). 현대패션에 나타난 젠 양식에 관한 연구. *복식, 50*(6), 163–175.

천유경. (1992). *그물소재를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해주, 이혜순. (2007). 한국 웰빙 패션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9*(2), 139–154.

컬러메카 라이브러리. (2007, 2. 15). *컬러메카*. 자료검색일 2009, 6. 20, 자료출처 http://www.colormecca.com

파파넥 빅터. (1995). *녹색위기*. 조영식 옮김 (1998). 서울: 조형교육.

한소원. (1995). *복식에 나타난 에콜로지 이미지-1990~1995년의 복식유행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소원, 김영인. (1999). 1990년대 초반 복식유행에 나타난 에콜로지 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23*(2), 296–306.

허혜진, 김영인. (2007). 현대패션에 나타난 에콜로지 룩의 색채특성. *한국색채학회지, 21*(1), 10–19.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 (2001, 3). *IRI색채연구소*. 자료검색일 2009, 3. 7, 자료출처 http://www.iridesign.co.kr

휘틀리 나이젤. (1997). *사회를 위한 디자인*. 김상규 옮김 (2004). 서울: 시지락.

Influence. (2003~2009).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09, 6. 7,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Pre-Trend. (2003~2009).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09, 6. 7, 자료출처 http://www.samgsungdesign.net

Black, S. (2008). *Eco-chic the fashion paradox*. London: Perseus Distribution Services.

Fiksel, J. (1993). Design for enviroment: The new quality imperative. *Cororate Environmental Strategy, 1*(3), 49–55.

Fuad-Luck, A. (2006). *Eco-design hand book*. London: Tahames & Hudson.

Hopfenbeck, W. (1993). *The green management revolution*. New Jersey: Prentice-Hall.

Mackenzie, D. (1990). *Green design*. London: Laurence King Ltd.

Waldemer, H. (1993). *The green management revolution*. New Jersey: Prentice-Hall.